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2017

6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修禪花 (36x36 - Acrylic on Canvas)

• 먼 산 뺨꾸기 소리가 아득한 불일암  
초여름, 세 번 찾아가면 한 번 짙은  
별 수 있었던 스님의 향기. 스님의 침  
목을 깨울 수 없어, 나는 접시꽃 당신  
의 나비가 됩니다. 아, 그 시절이 어  
제만 같은데... 제행무상(諸行無常)  
은 일찍이 배웠지만 불일암 추억만  
은 스님의 모습처럼 늘 사무칩니다.

고현 •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7 / 6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갈고 뿌린 다음에 먹으라
처음 마음으로	12	무연자비의 등을 켜자
꽃은 흠에서 핀다	16	씩은 세월
시심청심	21	부부란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22	체벌과 언어폭력
아름다운 마무리	26	6월 결연 대상자 - 김성녀(가명)
따뜻한 이야기	28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모단 에세이	30	값없는 생명
古典을 읽다	33	다산 정약용 서간집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아버지와 함께한 하루	38	이름 모를 풀꽃
맑고 향기롭게 소식	42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7년 6월 1일 발행 / 통권 267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갈고 뿌린 다음에 먹으라

몸을 근신하고 말을 조심하며 음식을 절제하여 과식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을 김매는 일로 삼고 있습니다.

글·법 정(法 頂)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거룩하신 스승(부처님)께서는 마  
가다국의 남산에 있는 ‘한 포기 띠[茅]’라  
고 하는 바라문 촌에 계셨다.  
그때 밭을 가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씨  
를 뿌리는 데 500자루의 괭이를 소에 메  
웠다. 스승께서는 오전 중에 내의를 입고  
바리때와 가사를 걸친 다음 밭을 갈고 있  
는 바라문 바라드바자에게로 가셨다. 때  
마침 그는 음식을 나누어주고 있었으므로  
스승은 한쪽에 서 계셨다.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음식을 받기 위해  
서 있는 스승을 보고 말했다.  
“사문이며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당신도 밭을 가십시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바라문이며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  
바라문이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 고타마의 멩에나 호미, 호미 날, 작  
내기나 소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라고 하십니  
까?”  
이때 밭을 갈던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시詩로써 스승께 여쭙었다.

“당신은 농부라고 자칭하지만  
우리는 일찍이 경작하는 것을 보지 못했  
습니다.  
당신이 밭을 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해하도록 말씀해주소서.”

스승은 대답하셨다.  
“믿음은 종자요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내 멩에와 호미  
부끄러움은 괭이자루  
의지는 잡아매는 줄  
생각은 내 호미 날과 작대기입니다.

몸을 근신하고 말을 조심하며  
음식을 절제하여 과식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을  
김매는 일로 삼고 있습니다.  
유화柔和가 내 멩에를 떼어놓습니다.  
\* 유화란 부드럽고 온화하다는 뜻.

노력은 내 황소이므로  
나를 안온의 경지로 이끌어줍니다.

물러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  
그곳에 이르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 안온은 열반과 같은 뜻.

이 밭갈이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단이슬이 과보果報를 가져옵니다.  
이런 농사를 지으면  
온갖 고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 단이슬[甘露]은 불사不死의 뜻.

이때 밭을 가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커다란 청동靑銅  
바리때에 우유죽을 가득 담아 스승께 올  
렸다.  
“고타마께서는 우유죽을 드십시오.  
당신은 진실로 밭을 가는 분이십니다.  
당신 고타마께서는  
단이슬의 과보를 가져다주는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바라문이며  
시를 읊어 얻은 것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르게 보는 사람들(눈뜬 사람들)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를 읊어 생긴 것을  
눈뜬 사람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바라문이며  
법도에 따르는 이것이  
눈뜬 사람들의 생활 태도입니다.

\* 시를 읊음은 설법을 말함. 즉, 설법의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뜻. 이런 형식은 불교 이전 바라문교 제의서祭儀書의 표현을 받아들인 것이다.

완전한 사람인 큰 선인[大仙人]  
번뇌의 때를 다 없애고  
나쁜 행위를 없애버린 사람에게는  
다른 음식을 드리십시오.  
그것은 마침내 공덕을 바라는 이의  
복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타마시여  
이 우유죽을 누구에게 드려야 하나요?”  
“바라문이며,

신, 악마, 브라흐만[梵天]들이 있는 세계  
에서  
신, 인간, 사문, 바라문을 포함한  
여러 중생 가운데  
완전한 사람[知來]과 그의 제자를 빼놓  
고는  
아무도 이 우유죽을 먹고 소화시킬 사  
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며,  
이 우유죽일랑  
산 풀이 없는 곳에 버리십시오.

그리하여 밭을 가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그 우유죽을 생물이 없는 물속에 쏟아버  
렸다. 그런데 그 우유죽을 물속에 버리자  
마자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  
이 끓어올랐다. 마치 온종일 띠약벌을 찌  
어 뜨거워진 호미 날을 물속에 넣었을 때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물거품이 이는 것  
과 같았다.

이때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온몸이 오싹  
해 두려워 떨면서 스승 곁에 다가섰다. 그  
리고 스승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여

쭈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고타마시여.  
놀라운 일입니다, 고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주듯이  
길 잃은 이에게 길을 가르쳐주듯이  
또는 “눈이 있는 자는 빛을 보리라”하여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고타마  
당신은 여러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주셨  
습니다.

저는 고타마 당신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도를 닦는 스님들의 모임  
에 귀의합니다.  
저는 고타마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具足戒]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밭을 가는 바라문 바라드바  
자는 부처님 곁에 출가해 완전한 계율을  
받았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바라드  
바자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홀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침내 더없이 청정한 행의 궁  
극을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얻기 위

해 집을 나와 집 없는 상태가 된 것인데 현  
세에서 스스로 깨달아 증명하고 구현하며  
살았다. ‘태어나는 일은 이제 끝났다. 청  
정한 행은 이미 완성되었다. 할 일을 다 마  
쳤다. 이제 또다시 이런 생존을 받지는 않  
는다.’ 라고 깨달았다.  
그리하여 바라드바자 장로長老는 성자聖  
者の 한 사람이 되었다.

\* 장로란 덕행이 높고 나이가 많은 수행승을  
일컬음.

### - 강론 -

#### 해탈에 버금가는 ‘농사’

춘예전부터 출가 수행자는 생산  
지기에 종사하지 않았다. 인도에  
서는 <베다> 시대부터 이리저 내  
려온 전통이다. 만일 출가 수행자  
가 농사를 짓거나 또는 뿔 만들어  
파는 일에 종사한다면, 그는 청정  
한 출가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가  
없다.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땀 흘려 애써 일하는 입장에서 보

면, 놀고먹는 무리들이 어찌면 사회의 기생충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 같이 생산직에만 종사한다면 그 사회는 조화를 잃고 한쪽으로 치우쳐 병들고 말 것이다.

저마다 기능과 역할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인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사회구조이고 보면, 사람마다 주어진 개인의 재능과 의무와 사명이 곧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데 한 몫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떤 종교학자는 사람의 얼굴로써 비유를 들면서, 종교는 마치 눈썹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입은 먹고, 코는 숨 쉬고 냄새를 맡는다. 이때 눈썹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썹은 눈을 보호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썹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의 얼굴이 될 수 없다.

종교 없이도, 또는 신앙을 업으

로 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인류 사회에 종교가 없고, 또 이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하고 메마를지 능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인류 역사상 여러 종교의 교조敎祖나 성자들이 출현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인류 사회는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불타 석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인류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묻지 않아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인류 사회는 그야말로 눈썹이 없는 얼굴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종교적인 세계에 투신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경제적으로는 비생산자들이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들이 농사지은 곡식을 거저먹

고, 만들어놓은 옷을 공짜로 걸치고, 시주의 돈으로 지어놓은 집에서 집세도 내지 않고 거저 살기 때문에 비생산적이에요, 소비적이에요, 더부살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사람이 어찌 물질로만 살아갈 수 있고, 물질만을 가지고 삶의 가치를 따질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 소홀히 넘기기 쉬운 정신 영역에 대한 탐구와 계발啓發은 눈에 보이는 경제 현상 못지않게 소중한다.

때가 되니 어슬렁어슬렁 바리때를 들고 탁발을 하러온 부처님에게, 당신도 갈고 뿌린 다음에 먹으라고 바라문이 핀잔을 하자, 나도 갈고 뿌린 다음에 먹는다고 한 부처님의 대답은 가시적可視的인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인간의 정신력을 계발하는 일은 마침내 단이슬[甘露, 즉 不死]의 과보를 가져온다는 것. 믿음과 고

행과 지혜, 부끄러운 줄 알고 불퇴전의 의지력과 신중한 언동과 음식을 절제하고 진실과 유희로써 삶의 지표를 삼는, 이런 '농사야말로 얹히고설킨 온갖 고뇌에서 우리를 해탈케 한다는 가르침이다.

사문沙門이란 산스크리트어 슈라마나Sramana의 속어형俗語 形인 사마나Samana를 소리를 따라 적은 것이다. 온갖 악을 끊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착한 일에 힘쓰고, 깨달음으로 가기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가리킨 말이다. 원래는 인도에서 출가자를 총칭하는 말로 썼는데, 불교 경전에서 바라문 이외의 출가 수행자를 사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사문의 뜻이 말하고 있듯이, 출가 수행자의 기능을 할 때는 '나도 받을 간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세상으로부터 기생충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도에서 행했던 이와 같은 걸

식의 형태가 기후 풍토와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오면 그대로 받아들여기가 곤란했다. 놓고먹는 것을 악덕으로 여긴 우리네 전통적인 풍습에서는, 설사 출가 수행자라 할지라도 손수 논밭을 경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백장 선사 같은 분은 총림(수도원)을 개설해 노동과 경작을 좌선이나 다름없이 중요시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교훈도 이런 환경에서 나온 것이다.

“믿음은 종자요,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내 멩에와 호미…….”로 시작해 “노력(정진)은 내 황소이므로 나를 안온의 경지로 이끌어줍니다. 물러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 그곳에 이르면 근심걱정이 사라집니다.”와 같은 부처님의 대답은, 수행자의 일상적인 생활 규범을 이

야기하고 있다.

‘시를 읊어 얻는 것’ 즉 설법의 대가를 받지 않겠다는 가르침은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바가 크다. 법을 팔아서 안 된다는 뜻이다. 법은 베푸는 것이지 파는 것이 아니다.

〈보적경寶積經〉〈가섭품迦葉品〉에서 부처님은 가섭 존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흔히 사문 사문 하는데, 어떤 것이 진정한 사문인가. 사문에는 다음 네 종류가 있다. 겉모양만 그럴듯한 사문, 점잖은 체하면서 남을 속이는 사문, 명예와 명성과 칭찬만을 구하는 사문, 진실하게 수행하는 사문 등이다.”

앞의 세 사문은 사이비이고, 맨 나중의 사문이 진실한 사문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진실하게 수행하는 사문이란 어떤 것인가. 그는 몸이나 생명에 대해서도 바라는 것이 없는데, 하

물며 자기 이익과 존경이나 명예에 대해서이겠는가. 열반조차도 원하지 않으면서 청빈한 수행자의 생활을 한다. 진리에 귀의하고 사람에게 귀의하지 않는다. 번뇌에서 해탈하는 길을 안으로 구하고 밖으로 찾아 헤매는 일이 없다.

미혹의 바다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할 섬으로 삼고 타인을 섬으로 삼지 않는다. 모든 존재의 본성이 열반 상태에 있음을 알아, 윤회에 유전流轉하지도 않고 열반에 안주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진실하게 수행하는 사문이다. 진실한 수행에 위해서만 사문의 덕행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이름만의 수행에 의해서는 그리 될 수 없다.”

바라문 바라드라자가 스승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한 말을 보자.

“놀라운 일입니다. 고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주듯이, 길 잃은 이

에게 길을 가르쳐주듯이, 또는 ‘눈이 있는 자는 빛을 보리라하여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고타마 당신은 여러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부처님의 뛰어난 가르침에 대해서 진심으로 찬탄하고 귀의의 형식으로 굳어진다.

“태어나는 일은 이제 끝났다. 청정한 행은 이미 완성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또다시 이런 생존을 받지는 않는다.”고 한 말은 다시는 더 윤회의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는 선언이다.

우리는 어째서 윤회를 되풀이하는가. 자기 분수도 모르고 밖으로 밖으로만 헛된 것을 찾아 헤매기 때문이다. 밖으로 팔았던 눈을 안으로 돌이키라, 잠든 자기 자신의 영혼을 불러 깨우라. 누가, 무엇이 그대를 묶어놓았는가.

## 무연자비의 등을 켜자

클·덕 일(德日)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도량 안팎으로 꽃이 아주 아름답게 만개를 하였습니다. 진달래꽃, 개나리꽃 등등... 여기저기 산이며, 들이며 어디를 가보더라도 푸릇푸릇하니 보기가 좋습니다. 그 초록색 마음이 바로 우리의 본심(本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길상사 신행 단체 임원진과 운영위원회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길상사가 더욱더 맑고 향기로운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심도 있게 서로 협의하고 인화를 다지기 위하여 여주 신록사에 성지순례 겸 다녀왔습니다. 여주는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아름다운 소도시입

니다. 또한 여주는 옛날에 한강의 모래밭이었던 곳이어서 땅콩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여주 신록사에 가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남한강이 한없이 아름다운 줄만 알았는데, 안타까운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63년 10월 23일에 아주 큰 해상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안양의 흥안초등학교 5, 6학년 학생과 교사, 학부모 총 158명이 여주 신록사로 수학여행을 왔다가 귀가하던 오후 2시 50분 무렵 신록사 맞은편 조포나루에서 일행을 태운 나룻배가 침몰하여 학생을 포함한 교사, 학부모 등 49명(남학생 15명, 여학생 22명, 교장을 포함한

학부모 12명)이 익사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합니다. 이 사고 또한 승선인원을 초과한 인재였다고 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록사 근처 남한강(여강)에 다리가 설치되지 않아, 배로 강 이쪽과 저쪽 사이를 건너야 했으며 신록사 관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배로 강을 건너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당시 박정희 의장은 위문담화를 발표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어 정부는 1962년 5월 15일에 착공한 여주대교 건설공사를 서둘러 다음 해인 1964년 8월 10일에 조기 개통시키고 조포나루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눈물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어디의 명승지를 가게 되면 아름답고 좋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모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답고 예쁜 곳을 향하여 쫓아서 행락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산을 등반하다 떨어져 세상을 등진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서려 있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강이나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부모형제의 절규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초하루 법회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살아가면서 항상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 길을 다니다가 로드킬 당한 모든 곤충이나 동물들을 볼 때마다 발보리심(發菩提心) 하라고 마음속으로 빌어주어야 한다고 일러드렸습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입니다. 아무 연고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차별 없이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안타깝게 피워보지도 못하고 저 어둠의 세계로 떠나간 어린 학생 영가들을 위하여, 저는 며칠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연등불을 밝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흔히 절에 오실 때 내가

죽과 내 형제를 위해서만 등을 켜줍니다. 하지만 이번 연등축제를 포함해서 부처님 오신 날에는 “무연자비(無緣慈悲)”의 등을 밝혀야 합니다. 수많은 인재사고(人災事故)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동물들, 즉 내 부모, 형제, 아이와 다름없는 분들에게 자비의 등을 밝히시라는 의미입니다.

음력 4월 8일은 부처님께서 왕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부모의 몸을 통하여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천안(天眼)으로 중생들의 고뇌를 살피시고, 중생을 건지겠다는 서원으로 사바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무명(無明)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고통 속에 살아가

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등(燃燈)을 밝히는 것은 바로 마음속의 무명을 환하게 밝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였던 숙업(宿業)을 밝은 연등 아래 모두 환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어제는 성북동성당에서 신부님과 회장단들께서 직접 길상사에 방문하셔서 봉축해 주시며 아름다운 꽃을 놓고 가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덕수교회 목사님과 신도님께서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성북동 뿐만 아니고 어느 동네든지 종교 간의 벽이 없이 화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종교가 옳고 저 종교는 그르다는 편견을 가지고 타종교를 비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연등 공양의 공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생존 시 가난한 여인의 등공양 과정을 살펴보면 공덕의 무량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 등 공양은 모든 정성이 깃들어야 공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의 작은 등불 하나를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성이 깃든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이 깃든 등은 여인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던 어둠을 환하게 밝히고 외로움과 가난의 업(業)을 녹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 : 등 공양을 올리면서 간절한 원(願)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은 등불을 밝히면서 간절한 원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여 보잘 것 없지만 미래세에는 반드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발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불교는 원을 세우는 종교입니다. 자신의 원의 실현을 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한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 등 공양은 장차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受記)를 받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이 원을 세우고 등

공양을 올리고 나니, 그 등은 결국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아침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신통력으로 등을 끄려 하였지만 등은 꺼지지 않고 온 우주 법계가 이 한 등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부처님으로부터 미래의 부처님으로 수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연등 공양의 공덕이 참으로 무량함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모두가 연등과 무연자비의 등을 밝히고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을 얻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말고 연등 공양의 의미와 공덕을 생각하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무진등(無盡燈)을 밝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처님 되십시오!

- 불기2561년 음력 4월 초하루 법문  
(2017년 4월 26일)



## 썩은 세월

글 • 김기철(도예가)

나에게 썩은 세월이라는 기간이 있었다. 그것은 6·25때 남들은 거의 다 대구,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임시 판자 교실에서나마 학업을 계속했는데 나는 충북 두메산골 고향으로 가서 농사일과 노동을 하면서 삼 년이나 되는 세월을 보냈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지계질이나 연장을 손에 들고 하는 일이 서투르기 짝이 없고 힘이 많이 들었지만 그런대로 할만했다. 눈만 뜨면 산이나 들로 나가 오직 입에 풀칠하기 위한 고달픈 나날이었건만 별 불만 없이 자연과 벗을 할 수 있었다. 결국 나는 농사짓는 데 재미를 붙여 그동안의 서울 생활보다는 피난살이가 몸에 익어갔던 게 사실이다.

드디어 전쟁은 끝이 나고 식구들이 서울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나 역시 중단했던 학업을 계속해야 하고 정들었던 고향 산천을 떠나야 했다. 나는 멋도 모르고 언제까지고 여기 파묻혀 농사를 짓고 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는 농사일이 내 체질에 맞고 익숙하게 되어 더 바랄게 없을 것 같았다. 겨울에는 눈 쌓인 산을 오르내리며 신나게 지냈고 봄이면 복숭아꽃, 살구꽃, 진달래가 온통 마을과 뒷동산을 뒤집어쓰우고 다시 깨어나 싱그럽게 피어난 산천이 선경을 이루었다. 여름은 여름대로 비지땀을 흘리며 논밭을 가꾸느라 허덕대지만 오수를 즐길 느티나무 그늘이 있고 시원한 냇물

에 뛰어들어 고기도 잡고 해엄도 쳤다. 아무래도 농부에게 가을만큼 풍요로운 계절이 없다. 이제부터는 황금 같은 낱알을 하늘이 거저 쏟아 부어준 것처럼 끌어들이는 일이다. 헛간이 차고 트락에 쌓이고 앞마당이 그득해지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때인 것이다. 나는 농사의 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서울 생활이 너무나 어려웠다. 없는 집에 시골 친척과 고향 사람들이 끊임 없이 없고 그냥 빌붙어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먹을 것이 없는 집에 손님이 와서 턱을 받치고 앉아 있을 때 난감함은 견디기 힘들었다. 먹는 것은 여럿이 함께 먹는 것이 좋지만 굶는 데에 하나라도 더 보태서 짬짬이 앉아 마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무슨 위안이 되겠는가? 그 당시 너나 없이 먹고 살기가 어려웠지만 우리

집은 더욱 말이 아니었다. 나는 늘 이런 현실이 불만스러웠고 창피스러웠다. 그러면서 소원이 일 년 먹을 양식이 충분해서 누가 와서 며칠씩 퍼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사는 것이었다. 거기다 욕심을 부리면 눈치 안 보고 실컷 묵고 있다가 떠날 때는 쌀 말이라도 퍼줄 수 있게 그득 식량을 쌓아놓고 살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밖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다. 그러면 흔히 새옹지마塞翁之馬니 전화위복轉禍爲福이니 하는 말을 끌어다 위안을 삼는다. 사실 이런 문구는 단지 웅색한 위로의 말로밖에 들리지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무릎을 칠 만큼 신기하게 맞아떨어진다. 그것은 나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 년을 썩었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지껄여

대기만 했지 그것이 내 인생의 노  
른자위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  
고 지냈다. 만약 이 기간이 없었다  
면 나는 교과서 속의 문자만이 인  
생의 전부라 여기고 어쩔 수 없이  
저기 매달려 오늘까지 발버둥 치고  
있을지 모른다. 비록 삼 년을 책 하  
나 보지 못하고 무식하게 손발만  
움직이고 지냈지만 이 기간을 통해  
자연과 함께 숨을 쉴 수 있었고 그  
와의 친화력을 키운 덕에 그런대로  
인생과 자연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자연은 부담이 없고 편안하다.  
그리고 후하다. 농사 역시 어둑하  
다. 씨 하나가 떨어져 수백 수천 배  
로 늘려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의 인심도 넉넉해진다. 같  
은 양의 곡식이라도 돈을 주고 팔  
아오면 인색해지기 쉽다. 한때 우리  
는 많은 객식구들이 드나들며 먹  
는데 목돈을 들여 팔아온 쌀가마

가 어느새 바닥이 나곤 했다. 이런  
상황에선 어쩔 수 없이 감질이 낫  
고 날곡식을 나눠 먹는 일은 엄두  
도 못 냈다. 그러나 농사를 짓고부  
터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뿐만 아  
니라 그득히 쌓아놓은 곡식을 기  
분 좋게 퍼낼 수 있는 것이다. 피난  
시절도 큰집 작은집 식구 해서 먹  
을 입은 방마다 눈을 껌벅이고 앉  
아 있는데 눈이 펄펄 쏟아지고 쌀  
쌀한 한겨울에 아침 지으려고 쌀독  
긁는 소리가 바드득거리면 한심스  
러웠다. 저 마당에 쌓이는 눈이 쌀  
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을 터무니없이 해보곤 했던 것이다.

나는 농사를 짓고 싶었다. 그래  
서 겨울이면 개미처럼 곳간에 가  
득 쌓아놓고 눈이 오든 바람이 치  
든 걱정할 것이 없이 더운 방에 배  
불리 먹고 지내는 게 제일이라 생  
각했다. 그러나 서울이 수복되어  
식구들이 되돌아가는 데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 당시 나는 혼자라  
도 남아 농사나 짓겠다고 냇두리  
처럼 뇌곤 했지만 얼마 안 있으면  
거둬들일 다 지어놓은 농사를 팽  
개친 채 떠나오고 말았던 것이다.

그 이후 줄곧 농사에 대한 미련  
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학업은  
계속되고 대학을 나오면 취직이 목  
적이다. 직장생활이란 대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좋으나 싫으나 정해진  
 일하며 월급을 타서 사는 단조롭  
고 지루한 일상이 되기 쉽기에 나  
는 처음부터 체질에 안 맞는 직장  
 생활이 탐탁치 않았다. 그러나 살  
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고 계속 곤  
욕을 치러야 했다. 남들은 기계에  
 기름을 치듯 매끄럽게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빠그덕빠그덕  
 편편치 못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더구나 권위를 앞세워 군림하는  
 윗사람들에게는 눈엣가시처럼 달  
 감지 않은 존재로 보였을 테니 신  
 밥 취급을 당했던 것이 당연할 것

이다. 나는 차라리 직장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세상 모르고 밭고랑  
에 앉아 호미질이나 하는 것이 속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두 번 한  
 게 아니었다. 술한 사람들 틈에 끼  
 어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하고 마음  
에 없는 소리, 꾸민 웃음으로 굽신  
 거려야 하는 인간사회, 그러다가도  
 부당하게 모욕을 당해도 꿀꺽꿀꺽  
 참고 견뎌야 하는 사회생활이 뭐  
 그리 대단한 출세문이라고 영겨 붙  
 어 있을까 싶었다. 그 옛날 기차는  
 커녕 자동차 한번 구경 못하고 날  
 이 밝으면 밭에 나가 곡식을 가꾸  
 고 저물면 움막 같은 집에 들어와  
 두 다리 편히 뻗고 잠자던 벽촌 사  
 람들이 오늘날의 약삭빠른 사람들  
 보다 못할 게 없이 훨씬 여유가 있  
 고 행복했을 것 같았다.

나는 비록 가난하고 불편한 원  
시의 생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문명의 부산물로 쏟아놓은 온갖

공해로 찌든 편리하고 능률적인 현대문명을 거부한다. 산업사회의 팽창과 거기 따르는 자연과 인간성 파괴의 결과가 우리의 미래를 말해 주기 때문이다. 아무튼 현대 사회가 과학이라는 만능의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며 기적처럼 또는 번개처럼 눈부신 발전을 가져다 준 대가로 우리의 생명을 송두리째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나없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선 편리하고 좋은 것만을 쫓다 당장 뒤따를 내일을 어찌하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나는 이십 년 가까이 잡고 있던 직장생활을 청산하게 되었다. 그동안 여러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어떻게 전공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하기는 사십 중반에 생소하게만 여겨지는 다른 분야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엉뚱하게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미 들어섰어야 할 길을 뒤늦게 찾았다고 말하고 싶다.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거기 맞추어 신체 각 부분을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 같은 부자유스런 곤욕에서 훌훌 벗어던지고 뛰어나와 자연이라는 자유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이 그저 고마울 뿐이다.

우리가 농사지은 곡식으로 먹고 지낼 수 있고 이나마 흙을 가지고 무엇을 빚어 창작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 거기가 됐든 안됐든 글이라도 쓰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단순한 학교 공부나 도시생활에서보다는 인생 칠팔십을 놓고 볼 때 크게 길지 않은 소위 공백기간이라는 삼 년의 '씩은 세월'이 아니었던들 불가능했으리라 나는 믿는다.

참으로 인생은 길게 볼 일이다.

## 부부란

글 • 방자경(작가)

부부란

서로의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는 만큼  
믿음의 바다가  
깊어 가는 사이입니다.

부부란

뜨거운 길거리 횡단보도에 서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릴 때  
아내의 이마에  
손을 얹어 양산처럼  
해를 가려 주는 남편의 배려에  
가만히 손잡아 주는 사랑입니다.

부부란

남편의 흰머리를 족집게로 뽑아주고,  
손톱깎이로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는  
작은 배려를 행복으로 아는 마음입니다.

부부란

성형의 기술로 감추는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아팠던 시간들을  
함께 이겨낸 인생의 주름살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감사의 눈빛입니다.

방자경 •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원 이사, 통일부장관상 수상, '마음 공부'에세이, '더 늦지 않은 지금' 시집 외

## 체벌과 언어폭력

글 • 고헌희(공감대화 개발원장)

마셜 로젠버그의 책 '비폭력 대화'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친구가 교장으로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이다. 운동장에서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때리는 모습이 교장실 창문 너머로 보였다. 교장은 '잠깐만' 하며 별떡 일어나더니 운동장으로 뛰어나갔다. 그는 큰 아이를 잡아서 '너보다 작은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마' 하면서 그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교장실로 돌아온 그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보기에 그 아이는 자네가 가르치고자 한 것을 배운 것 같지가 않아. 대신 그 아이는 교장처럼 자기보다 큰 사람이 볼 수 있을

때는 작은 애들을 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일 듯…….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를 원할 때에는 때려서 갖는다는 생각을 더욱 키워주었으리라 생각해.'

아래의 질문에 깊이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윗글의 교장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_\_\_\_\_

또, 마셜 로젠버그의 말에서 나온 '자네가 가르치고자 한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_\_\_\_\_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라는 말로 매의 효과를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인정하던 우리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직접 체벌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 체벌이 남아있는 곳도 있고, 간접 체벌은 공공연히 남발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은 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폭력이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언어폭력이 주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에게 체벌하고 언어폭력을 사용하는 목적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가치관을 형성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 형성과 긍정적 변화에 체벌과 언어폭력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잘못된 사람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교훈을 얻고,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마음을 나누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체벌이나 언어폭력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꾼 사람은 처벌이 두려워 잠시 바뀐 척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진심어린 뉘우침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은 형성될 수 없을 것이며, 깊은 사과의 기회를 가질 수 없고, 열린 대화로 긍정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인 '자아 존중감'을 간단히 이르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힘이 있는 사람을 자존감이 높다고 합니다. 자존감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는데 자신의 결정, 판단, 행동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쑥쑥 자랍니다. 체벌과 언

어폭력에 자주 노출되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해결책을 찾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대로 타인에게 행동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지요.

교장선생님이 큰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한 것은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 서로를 존중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은 제일 먼저 큰 아이의 폭력을 멈추게 한 후 왜 작은 아이를 때리려 했는지 묻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잠깐,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떤지?' 라고 질문으로 말하며 폭력을 멈추게 한 후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말해주겠니?' 라고

또 질문해야 합니다.

'때리지마, 말로 해!' 혹은 '너희들, 당장 교장실로 와!' 라는 명령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정리된 앓은 방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엄마가 공감대화로 말한다면,

'이렇게 물건들이 널려있는 네 방을 보면 엄마 기분이 답답해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기분도 상쾌하고, 몸도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방 정리 언제 할래요?'입니다.

이때 자녀가 엄마의 말을 받아들여 깨끗한 환경을 원하게 되어 청소를 자주 한다면 최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의 잔소리와 언짢은 태도가 보기 싫어서 청소를 한다면 '가치관 형성과 긍정적 변화'를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최선의 상황이 되려면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윗

사람의 말이 잔소리라는 생각이 지워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꾸준히 공감대화의 상·느·바·부·를 활용하여 상대의 마음을 열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진영각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법정스님의 삶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기뻐했습니다. 진영각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의 신발을 신기 편하도록 정리하시는 봉사자분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날마다 부처님오신날 같기를…….

### 월간 맑고 향기롭게 원고 모집 안내

살아가면서 느끼는 소소한 감동,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 가족 이야기 등 소중한 경험들을 자유롭게 써서 보내주세요. 맑고 향기롭게 회원, 길상사 신도 그리고 독자 참여 지면을 늘여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합니다.
  - 법인 사무국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를 보내주실 때는 본인의 소개(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가 채택될 시 귀중한 책 한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보낼곳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사)맑고 향기롭게
  - 이메일 : clean94@daum.net

## 6월 결연 대상자 - 김성녀(가명)

### 끝나지 않는 병마와의 싸움과

#### 고통의 시간

김성녀(가명) 어르신과의 첫 만남은 전화말벗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김성녀 어르신은 고운 목소리와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분으로 방문 전부터 기대되는 만남이었습니다. 첫 만남의 설렘과 기대를 안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번 초인종을 더 눌렀지만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생각에 다시 전화하려는 순간 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불편한 양 다리로 불안하게 걸음을 옮겨 현관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며 현관문을 늦게 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지체 하지 장애 5급으로 발목이 뒤틀리고 부어 있어 걷는 것이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금융업에 취업하여, 성실한 성격과 긍정적인 사고로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IMF 시기에 명예퇴직을 권고 받고 43세에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앓았던 당뇨병 합병증 증세가 어르신께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앞이 꺾꺾해지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백내장 수술, 망막 수술 등 5회 안구 수술 끝에 겨우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잠시, 당뇨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고,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

해 소변 배출이 어려워 매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신장 기증자가 생겨 2014년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고, 수술이 잘되어 투석치료 없이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투석 시 삽입한 인공혈관 제거 수술, 뒤틀리고 부은 발을 치료하는 수술 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 기나긴 병마와의 싸움에서

#### 이길 수 있도록 작은 희망을...

어르신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잦은 수술에 어르신은 그 동안 일을 하며 모았던 돈을 모두 사용하고도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약 5천만 원, 대출조차 받을 수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한 금액이 1천 5백만 원 등이 있습

니다. 금융권에서 빌린 돈에 이자만 월 10만원을 갚고 있어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픈 몸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어르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신을 위해 돈을 빌려준 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심적 부담감에 어르신은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어르신은 현재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월 수급비와 장애수당으로 월 약 6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지만, 아픈 곳이 많은 어르신의 특성상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음파나 X-ray 검사 등의 비용과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고 나면 생계비는 더 없이 부족합니다. 어르신이 남은 수술을 무사히 받고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월 20만원의 생계비를 1년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인터넷 다음 카카오톡 '같이까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두 천사가 여행 중에 어느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만한 부잣집 사람들은 저택에 있는 수많은 객실 대신 차가운 지하실의 비좁은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 잠자리에 들 무렵, 늙은 천사가 벽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는 그 구멍을 메워주었습니다.

젊은 천사는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자에게 선의를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자 늙은 천사는 대답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다음 날 밤 두 천사는 몹시 가난한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농부인 그 집의 남편과 아내는 그들을 아주 따뜻이 맞아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침대를 내주어 두 천사가 편히 잠잘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농부 내외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우유를 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밖에 없는 암소가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천사가 화가 나서 늙은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부잣집 사람들은 모든 걸 가졌는데도 도와주었으면서, 궁핍한 살림에도 자신들이 가진 전부를 나누려 했던 이들의 귀중한 암소를 어떻게 죽게 놔둘 수 있던 말입니까?”

그러자 늙은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부잣집 저택 지하실에서 잘 때, 난 벽 속에 금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지. 나는 벽에 난 구멍을 봉해서 그가 금을 찾지 못하게 한 것일세. 어젯밤 우리가 농부의 침대에서 잘 때는 죽음의 천사가 그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왔었네. 그래서 대신 암소를 데려가라고 했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

어쩌면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날 선 칼이 되어 자신과 주변을 상처 입히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국민을 섬기고 가까이하는, 그리고 국민을 닮은 따뜻한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 출처 : 따뜻한 하루

## 값없는 생명

글 • 최서해(소설가)

폭양이 내리쬐이는 어떤 날 였다. 나는 서대문 밖으로 가다가 서대문 정류장을 못 미쳐서 바른편 쪽에 있는 조그마한 일인日人 과자점 앞을 지나려니까 사람들이 죽 모여 서서 무엇을 구경하고 있었다. 나의 호기심은 앞에 급한 일을 두었더라도 그것을 간과치 않을 터인데 심심풀이로 누구를 찾아가던 판이라 그것을 보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다. 나는 인연人炎이 화끈거리는 것도 불고不顧하고 여러 사람의 틈에 끼여서 발돋움을 했다. 여러 사람의 시선을 끌게 된 주인공을 들여다본 나의 이마도 여러 사람의 이마와 같이 찡그러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거의 본능적일는지도 모른다.

나이가 말하면 삼십이 넘을라 말라 한 장년인데 과자점 서편 벽 아래 가로놓인 도랑에 쓰러졌다. 몸에 걸친 것은 팔뚝이 나간 적삼과 사루마타(짧은 속 잠뱅이)처럼 짧은 고의뿐인데 그것도 먼지와 땀에 절어서 묵墨도 아니고 회灰도 아닌 이상한 색으로 물들인 것 같고 노출된 팔다리의 살과 얼굴빛까지도 일광과 땀과 먼지와 그을음에 입은 옷빛처럼 되었다.

그는 언제부터 거기 쓰러졌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반신은 먼지가 나도록 마른 도랑 속에 떨어지고 상반신은 도랑 턱에 놓여서 벽에 비스듬히 기댔다. 호흡은 끊인 듯도 보이나 이따금 입가에 게거품이 부글부글 끓어 나와서는 느린

한 침이 되어서 뺨을 스쳐 타는 듯한 먼지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 아직도 실낱같은 목숨이 그 혈관에서 소리를 치는가 보다. 그 게거품은 부그르 끓어오를 때마다 강렬한 일광에 반사가 되어서 프리즘처럼 오색이 영롱했다.

눈은 내가 보는 그 순간에도 두어 번이나 변했다. 처음에는 반성반안半醒半眠으로 보이더니 좀 보이던 검은자위가 위로 치솟으면서 노한 눈처럼 크게 뜨었다. 그때에 그의 콧구멍으로선지 입으로선지 모기 소리만 한, 그러나 최후의 남은 힘을 다 부은 듯한 소리를 치면서 도랑에 떨어진 손을 경련적으로 미미히 흔들었다. 그 찰나 멀거니 보던 관중들은 뒤로 주춤하였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일광日光에 텐 듯이 보이는 배와 도랑에 떨어진 팔이 아까보다는 더 미미하게 한번 경련을 일으키면서 눈 가장자리가 두어 번이나 실룩거리

더니 그 커다랗게 부릅뜬 눈에 보이는 것은 흰자위뿐이었다. 그러면 서부터는 입술에 끓어 나오던 게거품도 더 나오지 않고 뜨거운 별에 쪼여서 한 방울 두 방울 스러질 뿐이었다.

이제는 최후의 힘을 다하여 뛰던 그 심장이 쉬었는가? 그는 그 최후의 감각이 끊어지기 전에 무엇을 바랐던가? 그 눈은 무엇을 보고자 그렇게 움직였으며 그 팔은 무엇을 잡으려고 했던가, 또는 가리키려고 했던가? 그에게도 부모가 있었던가, 처자가 있었던가? 만일 그렇다면 그의 눈은 시각을 잃기 전에 그 부모와 처자를 보고자 했을 것이고, 그의 손은 혈도가 식기 전에 부모와 처자의 손목을 잡으려고 했을 것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미미하고도 속힘 있는 소리는 무엇이던가?

그는 어찌하여 여기 이렇게 쓰러져서 최후의 길을 밟게 되었는가?



끓었는가 병들었는가? 끓고 병든 아이 세상에 나왔던 한 명의 인간 몸이언만 그것을 누일 곳은 이 뜨 이 나왔던 자취도 없이 스러지는 거운 별 아래 타 들어가는 길가밖 것을 보았다.  
에 없던가? 그의 머리맡에 던져진 <조선일보> 1928년 9월 23일 빈 지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 출처 : 모단 에세이 / 방민호 엮음 나는 이렇게 나와 같이 생을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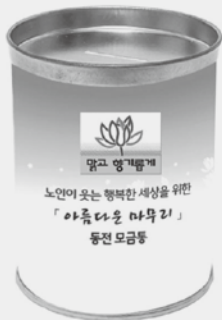
**최서해(1901-1933) 소설가**

본명은 최학송(崔鶴松). 함경북도 성진 출생. 선진보통학교를 5학년 중퇴한 후 간도 등지를 전전하며 풀팔이, 나무장수, 두부장수 등 최하층 생활을 했으며 이를 문학적 토대로 하여 신경향파 문학의 주류를 형성했다. 이광수의 추천을 받아 문단에 나왔으나 KAPF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곡절이 있었으며 위장병으로 요절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달출기>(홍염)등 신경향파를 대변하는 단편소설과 함께 장편소설 <호외 시대>를 남겼다.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동전 모금 캠페인**

한국사회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1인 가구, 고독사, 무연 사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독거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아름다운 마무리' 기부문화 캠페인과 더불어 동전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여진 동전은 독거노인의 생계비와 난방비,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되며, 채워진 저금통은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이나 길상사 종무실로 직접 가져오시거나, 신한은행 100 - 013 - 787953(맑고 향기롭게)으로 입금 해주시면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서간집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글 • 윤부혁(작가)

이백 년 전, 기름지지 못하고 메마른 남도 땅에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붓을 놓지 않았던 외로운 학자가 있었다. 다산 정약용(이하 다산으로 칭함)이 그분이다. 조선말 대표적 실학자인 다산은 매형 이승훈의 영향으로 실학에 관해 많이 공부했는데, 1801년 나이 40세 때 신유사옥에 휘말려 유배지로 귀양을 떠난다. 이후 다산은 1818년 귀양에서 풀려나기까지 18년간 유배지를 전전하면서 지배 권력의 피해자로서 못다 이룬 꿈을 학문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처절한 삶을 살게 된다. 다산은 세상에 두 번 다시 나오기 어려운 불세출의 학자였다. 그는 당시의 세계를 둘러보아도 따라올 수가 없는 최고의 사상가·정치가·행정가였으며, 그 시대 최고의 의사, 지리학자, 과학기술자였다. 그가 남긴 저서만 해도 500여 권인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추사 김정희는 “감히 다산의 세계를 논평할 수 없다”라는 평을 했고, 그가 태어난 지 250주년 되는 2012년, 유네스코는 다산의 탄생을 기리는 해로 정하기도 했다. 유네스코는 ‘마틴 루터킹 I Have a Dream 연설 50주년’,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 탄생 200주년’ 등과 함께 ‘정약용 탄생 250주년을 세계적으로 기념할 만한 중요한 해로 선정했다. 이렇듯 현대의 외국 학자들도 한자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대학자라고 평하고 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다산이 유배지 강진에서 강원도에 있는 두 아들과 지인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편지로 보낸 내용이 주된 글 모음집이다. 1810년 유배 죄인 정약용은 아내 홍 씨 부인이 보낸 치마를 받았다. 시집을 때 아내가 입었던 다홍치마 5폭이었다. 그는 낡은 치마폭을 자르고 중국산 종이를 오려 붙여 작은 서첩을 꾸몄다. 가족들에게 주기 위해서였다. 당시 큰아들 정학연은 28세, 둘째 아들 정학유는 25세였다. 노을처럼 빛바랜 붉은 치마에 썼기에 이것을 ‘하피첩(霞帟帖)’이라 부른다. 아득한 객지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빛바랜 치마 위에 당부의 글을 썼으니 다산의 바람대로 두 아들은 감회가 일었을 것이고 두 아버이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겼을 것이다.

이 글 모음집에는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비롯해 아들에게 내

려주는 가훈, 둘째 형님 정약전에 게 보내는 편지,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글 등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글들은 다산의 수많은 문집 중에서 편지와 가계(家戒: 경계의 말씀) 부분만을 따로 골라 수록한 것이다.

다산은 불세출의 대학자이기 전에 자식에게는 엄한 아버지였고, 형제에게는 다정다감한 동생이었다. 또한, 제자에게는 올바른 스승이었고, 아내에게는 따스한 남편이었음은 물론이다. 다산이 유배의 고통 속에서 가족과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는 진솔한 한 인간의 내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 지혜와 질은 감동을 안겨준다.

편지에서 다산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아들 학연(學淵)과 학유(學游)가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격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들은 편지를 통해 아버지에게 권유한다.

“아버님, 권세가들에게 귀양살이에서 풀려나도록 도와줄 것을 간청하심이 어떠한지요…….”

이러한 의견에 다산은 ‘사소한 일을 가지고 절조를 잃어버려서야 되겠느냐’라며 매섭게 질책하는데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소망은 추상과도 같다.

편지에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슨 공부를 해야 하며, 가족 간 윤리, 친인척과의 인간관계, 양계, 양잠하는 법, 심지어 친구를 사귀고 술을 마시는 법도까지 세세하게 적혀져 있다. 이 편지들을 읽다 보면 시대를 불문하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음을 알 수 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막내아들의 죽음을 듣게 된다. 그의 글은 슬픔을 견딜 수 없어 오열하고 통곡하지만, “이달 들어서 공사 간에 슬픔이 크고 밤낮으로 가신 이에 대한 그리움을 견딜 수 없으니 이

어인 신세인가. 더 말하지 말기로 하자”라는 표현을 쓴다. 이러한 문장에서는 대학자도 견디기 어려운 극한의 슬픔 속에서 감정에 무작정 매몰되지 않는 절제가 묻어난다. 이렇듯 글의 표면에는 엄격함이 넘치지만, 횡간에는 자상하면서도 애끓는 부정이 흐른다. 외롭고 고단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어려움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오직 아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다산은 자신과 같은 이유로 흑산도로 유배 간 둘째 형님 정약전(丁若銓)과도 서간을 주고받으며 변함 없는 우애를 나누었다. 절해도고인 흑산도에서 어류와 조류를 관찰하던 정약전은 그 관찰의 결과를 기록하여 책 제목을 ‘자산어보(玆山魚譜)’라 명명했다. 약전은 흑산(黑山)이라는 섬의 이름이 너무 검기

에 밝은 빛이 도는 자산(玆山)으로 칭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둘은 형제이지만 평생지기와의 같은 관계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서로 불우한 처지에 구애받지 않고 학문과 삶에 대한 식견을 나눈다. 특히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고도 흑산도에서 다산보다 더 외로운 유배생활을 하는 형님의 건강을 염려하여 개 잡아먹는 법까지 자세히 적어놓은 글에서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는 형제애를 느낄 수 있다.

다산이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가난한 제자들의 생계까지 염려해주는 자상한 스승의 마음씨가 잘 드러나 있다. 불합리하더라도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역설처럼 다산 자신은 과거제도를 맹렬히 비판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제도를 통해서만 벼슬길로 나아갈 수 있는 현실을 인정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과거 공부에 힘을 다하라

고 주장하거나 애써 힘든 길로 가지 말고 지름길로 가라고 당부하는 현실적인 가르침 등은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표현이다. 이 편지글들은 다산이 실학자로서 얼마나 튼튼한 현실주의적 사고와 실학사상을 지녔는지 보여준다. 교육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교권이 흔들리는 작금의 세태에서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돌아켜보게 만든다.

다산이 실의에 빠진 아들들에게 ‘우리는 폐족이다.’라고 한 선언은 포기나 좌절이 아니다. 다산은 자기가 처한 현실을 이유로 자신과 후손들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비록 벼슬길은 막혔으나 성인이 되고, 문장가가 되고, 진리에 통달한 선비가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점이 많다.”

이는 다산이 현실을 오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는 끊임없이 ‘내가 너희 억울함을 충분히 이해한다.’ ‘요즈음 네 글을 보니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내가 알고 있으니 용기를 가져라.’라며 두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격려한다. 끝을 알 수 없는 질곡의 고통 속에서도 자녀와 형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낸 다산의 편지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 아버지의 당부이자 동생의 따스함, 스승의 사랑이 담긴 손 편지 자체여서 절절하기까지 하다.

유배지에서 다산이 아들과 형님,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글에는 자상하고 간곡한 아버지와 스승의 정이 넘치면서도 그 밑바닥에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뜨거운 의지가 용솨음친다. 참다운 스승을 만나기 어려운 오늘날, 다산이 서한으로 전한 내용은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깨우침으로 다가온다.

## 맑고 향기롭게 모바일 앱(APP)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소식과 길상사 소식, 법정스님의 법문 영상, 글을 모바일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과 앱(APP)을 개발 구축하였습니다.

모바일(스마트폰) → 구글 play스토어 → 맑고 향기롭게 검색 → 다운로드 → 설치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의 많은 이용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이름 모를 풀꽃

글 • 김광석(나고야대학 교수)

어느 때보다 늦게 시작한 아침이다. 늘 아침에는 새소리가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오늘 아침은 피약벌에 피서라도 갔는지 그들의 아름다운 속삭임은 나의 귓전에 다가오지 않는다. 적막함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제를 돌이켜본다. 그리고 난 후 오늘을 아버지와 함께 준비를 하고 나면 부처님의 삼귀의(불법승(佛法僧)을 믿고 의지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합장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일궈간다. 요즘은 햇님이 부지런하신 탓으로 나의 이런 조례도 빨라져서 마치고 나면 6시 쯤 되곤 한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늙으신 어머니의 시간에 맞추려고 나의 아

침을 뒤로하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팔 남매를 두신 어머니는 어찌 편할 날이 있겠는가. 그도 모자라 최근 들어 나의 부덕함으로 인해 또 하나의 근심을 더하고 말았으니 어머니께 변명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최근 귀가 어두워져서 자식들의 전화에도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시던 어머니 오늘 아침은 또박또박 잘도 알아들으신다. 아마 이것이 나의 불효 탓일 것으로 생각하니 순간 간담이 서늘해져 왔다. 그래서 내가 아닌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와 함께하고 나니 한결 가벼워졌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들은 그릇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니 염려 마시고 마음 편히 지켜봐 주세요.”라고 고하고 나니 어머니도 안도하신 것 같았다.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하고 좌선의 시간을 가진 후 샌드위치에 우유 한 잔을 바쁘게 삼킨채 연구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게 느껴졌다. 연구실까지 자전거로 15분가량 가는 길은 늘 아버지와 함께 이른 아침의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는 시간이다. 담장 밖으로 얼굴을 빼죽 내민 철 지난 붉은 장미의 도도함을 보며 에너지를 느끼며, 수줍은 듯 꽃잎만 살며시 담장 밖으로 내미는 화려한 보랏빛 창포꽃을 보고는 겸손함을 배운다.

연구실 앞뜰 정원 한켠에는 잡초가 적당히 자리하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이름 모를 그 작은 꽃잎에 반해 그 앞을 그냥 스쳐 지날 수가 없다. 몸을 낮추고 앉아서 보

야만 눈에 들어오는 앙증맞은 작은 꽃잎은 마치 해맑은 어린아이의 웃는 얼굴과도 같아 더없이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그런데 끔찍한 일이 생겨버렸다. 부지런한 정원관리사가 잡초를 깨끗이 정리하면서 앙증맞던 작은 꽃잎도 같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던 것이다. 순간 가슴에 뜨거운 뭔가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정말이지 주저앉아 영영 울고도 싶었다. 늘 나의 걸음을 멈추게 해놓고 이런 저런 얘기를 주섬주섬 나누었던 작은 꽃잎이 한순간 자취를 감추고 말았으니 빼앗긴 나의 마음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식당 앞 한켠에 바로 그 이름 모를 꽃들이 소복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피약벌에도 아랑곳없이 함박웃음을 머금은 채 재회의 기쁨을 한껏

이 나눴다. 누군가가 해코지라도 할까 봐 조심조심 혼자서 가만히 만나고 왔다. 오늘 아침도 찾아가 깨워놓고 왔다. 부스스 눈을 비빈듯한 모습으로 수줍은 듯 아직 꽃잎을 펼치지 않은 그 모습은 나를 더욱 반하게 만든다. 나중에 예쁘게 단장하고 나오겠다고 한사코 떠미는 그를 뒤로하고 연구실로 들어가는 나의 기분은 날아갈 것 같이 신이 났다. 조금 있다가 만나러 가야겠다.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캠퍼스가 한산하다. 그러니 그의 곁에 주저앉아 나만의 비밀 얘기도 털어놓을 작정이다. 못다 한 아버지와의 한 맺힌 이야기와 홀로 남은 우리 어머니의 옛 얘기도 들려주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 대한 내 생각도 들려주고, 늘 부족한 환경 속에서 꾀꾀이 자라 준 나의 두 아들을 지켜보는 애비의 마음도 털어놓고, 소같이 일만 하며 살아온 아내에 대한 말 못한 사연들도 나누고 와야겠다. 어

쩌면 이 세상에서 나의 이러한 얘기를 들어줄 상대는 그가 아니고는 누구도 없을 것만 같아 이참에 한 맺힌 아내 심정을 다 내려놓고 싶다.

한나절을 보내고 다시 그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침 출근할 때와 달리 생생한 모습으로 바람에 어우러져 춤을 추고 있었다. 내가 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람과 어울려 노느라 정신이 없다. 하는 수없이 옆자리에 주저앉아 기다리다가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얼마 전 어머니 팔손과 할아버지 제사를 위해 귀국했을 때 아버지 산소에 들러보니 잡초가 군데군데 자라나 온종일 띄약별 아래서 주저앉아 뽑은 적이 있다. 그때 만났던 꽃잎이 바로 이 꽃잎인 것을 알았다. 순간 난 온몸에 전율을 느꼈고 등골이 오싹한 기분과 함께 눈앞이 흐려졌다.

아버지 산소에는 많아야 열 송

이 남짓밖에 되지 않았고 아주 자그마한 꽃이었다. 잔디 속에 파묻혀서 유심히 들여다보아야만 보일 정도로 아주 자그마한 꽃잎을 가진 꽃이었지만 늘 아버지 곁에서 함께 해 주는 것이 여덟 자식보다 더 기특해서 혹시 밟히기라도 할까 봐 조심하던 귀중한 꽃이었다. 그때 집에 돌아와 어머님께 꽃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잡초지 그게 무슨 꽃이다냐?”라고 마치 실성한 눈 취급하셨다. 그래도 난 아랑곳하지 않고 내일이면 팔 남매가 다 오게 되고 아버지 산소에 들르게

될 터인데 혹시 밟을까 걱정이라고 했더니 “너도 속이 없다잉~ 거기 무슨 꽃이 있다고 그란다냐..”라고 어머니는 거듭 나를 정신 나간 놈 취급을 해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그 꽃이 지금 내 곁에, 그것도 국경을 넘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아버지를 두고 타국 멀리 떠나는 자식의 맘을 알아채고 이렇게 나를 따라왔는지도 모르겠다. 언제 어디서나 늘 나는 아버지의 숨결을 항상 느끼며 살아간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김광석 • 중학교를 졸업하고 15세의 나이로 나전칠기 기술을 익힌 뒤 주경야독으로 방송통신대 법학과에 입학하여 3학년 도중에 사업 실패로 중도 하차했다. 그 후, 학비 마련을 위해 택시 운전과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을 통해 학비를 마련하여,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 나고야대학 법학 연구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나고야대학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다.

- 그리 풍요롭지 않은 가정환경,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 늦은 나이에 유학길에 올라, 타국 땅에서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깨닫고, 스페르타식 교육으로 자식들을 가르쳤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저자의 모습을 통해, 막상 내 곁에 계실 때는 느끼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깨닫고 뒤늦은 후회와 그리움을 절절히 느끼는 이 시대 자식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애잔한 사부곡을 지난 2016년 1월호부터 이달 호까지 따뜻하게 나눠주시는 김광석 교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2017년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 안내  
일요특강 - 6월 25일(넷째 일요일) 오전 11시 / 설법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원

### 김주용 박사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경절 문제를 1919년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하였다. 이 회의의 통해 국경일과 국경일 명칭안의 입안이 결정되었으며,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거쳐 3월 1일을 독립선언일로 제정하였다.

그렇다면 왜 임시정부는 3.1운동을 국경일로 제정하였을까? 바로 3.1운동으로 독립국임을 천명하였고,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1919년 3월 1일의 독립선언이 곧 대한민국의 독립이자 건국이며, 이를 계승한 전국대표가 상해에 모여 수립한 것이 임시정부라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주용 박사는 현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13년간 국외독립운동사적 업무를 담당하며, 숨겨진 독립운동의 역사를 찾아내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일)에는 김주용 박사를 초청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3·1운동>에 대하여 알아보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5월 13일 숲기행 경북 의성 고운사, 영천 이씨 집성촌 산운마을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5월 긴 연휴 후 회원님들과 함께 숲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숲과 시골마을의 정취

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5월 13일은 경북 의성군 고운사, 산운마을, 빙혈, 탐리리오층석탑을 탐방하고 왔습니다. 고운사 일주문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사찰 주변 생태를 공부하고, 고운사에 대해 문화해설사의 안내를 들은 후 자유 참배와 점심공양을 하였고, 경주 이씨 집성촌인 산운마을로 이동하여, 설명과 더불어 탐방하였습니다. 이후 빙혈과 빙혈 주변 생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탐리리오층석탑을 탐방하였습니다.



### 대학생 봉사 활동 지원 '나눔의 기쁨' - 어린이날 운동회 진행

지난 5월 3일, 맑고 향기롭게가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나눔의 기쁨'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교육봉사동아리 나누미(이화여대, 연

세대 연합 봉사 동아리)의 첫 번째 연중 행사로 어린이날 운동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나누미의 전통적인 연중 행사로, 나눔공부방의 저소득층 학생들과 친밀감을 쌓고 공부방에서 나와 학생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활동입니다.

공부방 근처 한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구, 줄통과하기, 신발날리기, 일삼동체게임, 릴레이달리기 등 많은 게임을 하였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간단한 퀴즈도 풀면서 더위를 이겨냈습니다. 어린이날 집에서 혼자 놀게 될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날 선물과 함께 재미있는 추억을 쌓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행사의 가장 큰 목적이자 성과였습니다.



### Maekko Hangeurumge 정기 자원 활동 봉사자 모집

#### \* Maekko Hangeurumge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 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 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사회가 혼란할 때 조그마한 관심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둘째 목요일에는 김치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aekko Hangeurumge 봉사자를 비롯하여 KTX 나눔이회, SJ파워 사랑봉사단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반찬 나눔은 매주 500여 가구에 밑반찬 2종류, 분기별 농협상품권(3만원) 지원, 명절(설날, 추석), 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 물품 후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전화 말벗 자원 활동

전화 말벗 자원 활동은 Maekko Hangeurumge 반찬 나눔 후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등에게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으니 대화기법 ※ 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뜻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노인 노인요양원 자원 활동

노인요양원 자원 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 활동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 활동은 어르신을 위한 점심 무료급식 활동으로 배식, 설거지 등을 합니다. Maekko Hangeurumge 봉사팀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 \* 아름다운 만남 - 청소년 자원 활동

'아름다운 만남' 자원 활동은 노인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밑반찬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자원 활동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Maekko Hangeurumge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모임은 매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 \* 유행이 지나 안 쓰는 원단 기증해주세요.

시민모임 「Maekko Hangeurumge, 중앙모임에서는 생활 속에서 의류 재순환(리사이클링)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거나, 버려지는 원단(면, 실크, 폴리, 자카드, 생지 등)을 기증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기증해주시는 원단은 가방, 매트, 앞치마, 실내용 등 재순환되어 수명을 연장시키고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살리는 생활운동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

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6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Maekko Hangeurumge>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1일(목/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Maekko Hangeurumge 강연회 : 6월 25일(일) 나의 삶, 나의 길 - 김주영(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선임연구원)

##### <세상을 Maekko Hangeurumge>

- Maekko Hangeurumge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 목, 금요일(1,2,15,16,22,23,29,30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8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물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5,12,19,26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11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발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7일)/오후 1시 30분/다라니다원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토요일(17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매주 화요일(13,20,27일)/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달 매주 수요일(7,14,21,28일)
- 술기행 : 경북 안동시 봉정사, 천등산-웅천마을(진주 강씨 집성촌)/10일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보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중앙 사무국 사업팀 인사 안내**

- 소백수 사업팀 간사 → 사업팀장 승진
- 주소영 사업팀 신입 간사 입사

**후원계좌안내 (CMS, 계좌입금)**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아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 3층을 새롭게 단장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층은 회원 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9시~2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일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일 첫째 화요일 11시
- 법정스님 책임기 모임 : 매일 둘째, 넷째 금요일 / 법정스님 법문집 읽기, 법문영상보기
-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정서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설거지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첫마음(소식지)발송 : 매일 초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일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식(자비 공양의 집), 매일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일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일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일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일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로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3주 토요일
- **술기행 자연보호활동** : 매월 4주 월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감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 무국
- **노래모임** : 간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시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각 회차(100일)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6회차 기도가 6월 24일(토)에 입재되었으며, 수시로 접수합니다.

###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6월 3일(토) 오후 6시~8시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백중아미타기도 입재 / 하안거 결제

- 일시 : 6월 9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보름기도

- 일시 : 6월 9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6월 10일(토) 오후 8시 ~ 6월 11일(일) 새벽 3시 40분
- 장소 : 극락전

### 지장재일

- 일시 : 6월 12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 관음재일

- 일시 : 6월 18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5회차 회향

- 회향 : 6월 23일(금)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6회차 입재

- 입재 : 6월 24일(토)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초하루기도 및 범회

- 일시 : 6월 24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수능기도 입재

- 일시 : 8월 9일(수)
- 장소 : 극락전

## 다라니기도 시간 및 저녁예불 안내

하절기 저녁예불은 오후 7시에 시작되지만, 다라니기도가 병행되는 첫째 토요일에는 저녁예불과 다라니기도를 오후 6시에 시작하오니, 다라니 기도에 동참하시는 신도님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6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6월 3일(토)	저녁 6시	극락전
백중아미타기도 입재 및 하안거 결제	6월 9일(금)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6월 9일(금)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6월 10일(토)	저녁 8시	극락전
지장재일	6월 12일(월)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6월 18일(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금강경기도 5회차 회향	6월 23일(금)	오후 2시	극락전
금강경기도 6회차 입재	6월 24일(토)	오후 2시	극락전
초하루법회	6월 24일(토)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저녁 6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설법전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거사님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관음재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소강당

## 맑고 향기롭게 '숲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 숲과 시골 마을(집성촌)의 정취를 찾아서

- 6월 10일 : 경북 안동시 봉정사, 천등산-웅천마을(진주 강씨 집성촌)
- 7월 8일 : 전북 고창군 선운사, 왕버들 숲, 고창 고인들군-남창마을(진주 강씨 집성촌)
- \* 8월은 휴가철과 더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 접수 : 숲기행을 다녀온 후 월요일부터 중앙 사무국으로 선착순 42명까지 전화 및 방문 접수
- 참가비 안내 :
  - 일반참가자(비회원) : 45,000원
  - 할인 혜택(맑고 향기롭게 후원회원&정기 봉사자, 길상사 신행단체회원, 길상사 신도증 발급자) : 35,000원
  - 점심식사 포함(시골 마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 식사를 탐방 지역에서 해결합니다.)
- 입금처 : KEB하나은행 257-890001-69804 / 예금주: 맑고 향기롭게
- 문의 및 접수처 :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02-741-4696
-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 불일암 사계> 발간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이 머물던 암자인 불일암을 찍은 최순희(1924-2015)의 '불일암 사계' 사진집을 복원하여 오래된 사진에 어울릴 만한 법정 스님의 글을 가려 뽑아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를 엮어 발간하였습니다. 1994년 발간된 '불일암 사계' 사진집은 소량만 만들어 지인들에게만 나누어준 비매품 도서였습니다. 최순희의 사진 속 어디에도 법정 스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법정 스님을 자신의 카메라에 담는 것을 큰 실례로 여겼나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불일암의 구석구석과 사계절의 흐름 속에서 언뜻언뜻 법정 스님이 느껴집니다.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의

# 제 1회 ‘마음·세상·자연’ 사진 공모전

- 공모기간: 2017. 5. 10(수) ~ 8. 10(목) -



**공모주제** 길상사내의 맑고 향기로운 수행, 나눔, 자연, 사계절 사진 공모전

**공모자격** 제한없음

**공모기간** 2017년 5월 10일 ~ 8월 10일까지

**입상작 발표** 8월 30일(예정)

### 접수방법

- (사)맑고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진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 (clean94@hanmail.net)
- 1인 3작품 이내

### 출품규격

- 디지털 사진 / JPG 이미지파일로 2,000만 화소 이상(크기는 5MB 이상) / 권장사항
- 필름 사진은 스캔 후 응모 가능

### 유의사항

- 시상작은 공모전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되는 전시 및 간행물 발간, 홍보 자료 제공 등 복제, 전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작품으로 인한 소유권, 저작권, 초상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시상내용

종류	인원	상금액
대상	1	상장 및 상품권 150만원
최우수상	2	상장 및 상품권 50만원
우수상	3	상장 및 상품권 30만원
장려상	6	상장 및 상품권 20만원
입선	30	상품권 3만원

주최 **맑고 향기롭게** 주관 **길상사**

사진 공모전과 관련된 세부 내용과 참가신청서는 (사)맑고향기롭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clean94.or.kr](http://www.clean94.or.kr) / Tel. 02.741-4696